

계획적 행동이론에 의한 초임 여성의 모유수유 실천의도 예측에 관한 연구

김 지 은 · 박 동 연[†]

동국대학교 가정교육과

A Study on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of Breastfeeding among Primigravida

Jie-Eun Kim, Dong-Yean Par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Kyongju, Korea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edicting factors for the intention of breastfeeding with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31 primigravidas who were in their third trimester of pregnancy in Seoul, Kyonggido, Kyongsangbukdo, and Kyongsangnamdo.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were used to analyse the data. The subjects showed strong intention of breastfeeding. The subjects showed favorable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This fact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belief that their breastfeeding intention was due to the advantage of breast milk for the infant with regard to allergy prevention, disease protection, contribution to intellectual development,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mother and infant, convenience, cost, and the reduction of breast cancer risk and weight of the mother. No item of outcome evaluation did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behavioral intention. The subjects were influenced about breastfeeding by their referents such as siblings and friend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their mothers and husbands, and mothers-in-law. Most items of the control belief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intention of breastfeeding. The subjects felt they could not control the situation ie. 'when I have to breastfeed in public'. However they felt they could control the situation ie. 'when I suffer from mastitis', 'when I have to cut down on coffee, alcohol, and smoking', 'when I have Cacsarean section', 'when I need to maintain breast condition', and 'when the infant hates to suck my nippl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ontrol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could predict the behavioral intention of breastfeeding. Control beliefs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predicting behavioral intention. Therefore, nutrition education is needed to enhance the ability to cope with difficult situations while breastfeeding and increase favorable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Korean J Community Nutrition 6(3) : 331~339, 2001)

KEY WORDS : breastfeeding · theory of planned behavior · behavioral intention · attitude · subjective norms · control belief.

서 론

모유수유가 영아와 수유부 모두에게 신체적, 정서적 이득을 준다는 점은 잘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모유수유가 주는 많은 이점 때문에 소아과학회, 미국공중보건학회, 미국

영양사협회 등 공공단체들이 산모에게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이들 공공단체의 노력외에 The Special Food Supplemental Program for Women, Infants, and Children(WIC)과 같은 영양관련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임신부에게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미국에서는 전국을 평균하여 볼 때 모유수유율은 1970년에 25%에서 1981년에는 58%로 증가하였고 1990년대 56%를 유지하고 있다(Barron 등 1988; Black 등 1990). 브라질의 경우는 1970년대에는 모유수유율이 27%이고 1980년대에는 77%로 현격히 증가되었다(정혜경 1993). 필리핀의 모유수유율은 1970년대 26%에

채택일 : 2001년 8월 2일

[†]Corresponding author : Dong-Yean Park,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Dongguk University, 707 Seockchang-dong, Kyongju 780-714, Korea
Tel : 054) 770-2267, Fax : 054) 770-2001
E-mail : pdy@mail.dongguk.ac.kr

서 1980년대 87%로 증가하였으며, 스웨덴은 1970년대에 76%에서 1980년대에 93%로 증가하였다. Papua New Guinea에는 1977년에 65%이던 모유수유율이 1980년대에 88%로 증가하였다(김화숙 1991; 정귀영·이근 1983). 이와 같이 외국의 모유수유율은 점차 증가 추세임을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60년대에는 95%의 높은 모유수유율을 보였으나(정혜경 1993), 1970년대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1970년대의 모유수유율은 지역과 연구자에 따라서 46~70%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김화숙 1991; 최상순 등 1996). 1980년대에는 36~50%로 감소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20~34%(최상순 등 1996)로 모유수유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도시에 비해 농촌의 모유수유율은 아직까지는 높지만 농촌의 모유수유율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 한국 농촌의 모유수유율은 1976년 95%에서 1980년 82%로(남은숙 1994), 1992년에는 43.0%로 감소하였다. 그러므로 모자보건의 차원에서 모유수유를 높이기 위한 교육적인 중재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유수유를 결정하는 산모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외국의 연구자들은 모유수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모유수유 의사결정에 관한 외국의 연구로는, 모유수유에 대한 결정과 문화적, 교육적, 심리적 요인과의 관련성(Black 등 1990), 수유방법에 대한 산모의 선택과 여러 인구통계학적 요인,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관련(Bloom 등 1982), 모유수유에 대한 산모의 태도와 모유수유 결정간의 관계(Anderson & Shepherd 1989; Black 등 1990; Cusson 1985; Jones 1986; Matheny 등 1987; Scott 등 1997),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산모의 나이, 교육수준, 모유수유 경험, 모유의 장점에 대한 정보와의 관계(Humphreys 등 1998), 모유수유에 대한 신념(Libbus 등 1997; Melville 등 1987), 모유수유 증지와 지속에 관련된 요인(Feinstein 등 1986; Spake & Harris 1993), 모유수유 의도 예측(Balcazar 등 1995; Buxton 등 1991; Manstead 등 1983) 등의 연구가 있었다. 또한 모유수유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가족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남편의 격려와 모유수유 결정과의 관계, 남편의 격려와 최초 모유수유 행동과의 관계, 남편의 격려와 수유기간의 상관성(Bar-Yam & Darby 1997; Black 등 1990; Jordan 1986; Jordan & Wall 1990; Scott 등 1997; Wright & Walker 1979)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산전교육과 모유수유 결정간의 관계(Black 등 1990; Timbo 등 1996)에 대한 연구도 있었다.

한국의 경우 모유수유에 관한 연구는 모유수유 실패의 원인(정귀영·이근 1983; 최상순 등 1996), 모유수유 저해 요인(오현이 등 1994; 이미자 1995),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변수자 등 1994), 모유수유 지속 요인(김화숙 1991), 모유수유 실천 관련요인(권숙희 등 1993), 모유수유 실천율(박순정 1996)에 관한 연구와 같이 모유수유 실패에 대한 조사, 산모의 일반적 특성과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 등의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나 실천율을 조사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남은숙(1994)의 연구만이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행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간호학에서의 접근이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한국에서 보고된 대다수의 논문은 실태조사가 대부분이었고, 이론적 틀을 이용하여 모유수유 실천을 예측하거나 설명한 연구는 남은숙(1994)의 연구가 거의 유일했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것은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임신부의 영양교육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jzen에 의해 개발된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을 이용하여 임신부의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혀내어 모유수유 실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모유수유 증진을 위한 영양교육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조사대상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시기

조사대상자는 서울(송파, 종로), 부산, 경기도(광명, 부천, 분당, 일산, 하남), 경남(창원)과 경북(안동)에서 실시한 M유업의 임신부를 위한 강연회에 참석한 임신부였다. 이들 중 초임이며 임신 후반기(임신 7~9개월)에 해당되는 임신부 13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조사는 강연으로 인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해 강연 시작 전 조사하였다. 조사는 1999년 6월중 실시하였다.

2. 설문지 개발과 내용

1) 설문지 개발

설문지는 3단계를 거쳐 개발되었다. 1단계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 초고를 작성하였다. 2단계로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의도, 모유수유를 할 때 기대되는 행동 결과에 대한 신념, 그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 규범적 신념, 순응동기, 통제신념 등을 알아보기 위해, 개방형 질문으로 경주시에 있는 D 종합병원에 내원한 임신부 8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설문지 초고를 수정·보완하였다. 3단계로, 수정·보완된 설문지로 경주시에 위치한 D 종합병원, K 종합병원, 개인병원 3곳에서 임신부 16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를 실시한 후 신뢰도를 평가하고 설문지를 확정하였다.

2) 설문지 내용

설문지의 내용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과, Ajzen의 Theory of Planned Behavior의 모형에 따라 모유수유 실천의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동 통제력으로 구성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과 그 행동 결과에 대한 평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측정하였다. 인지된 행동 통제력은 통제신념으로 측정하였다.

3) 일반적 사항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에는 나이, 교육수준, 거주지, 가족의 월수입, 영양교육 받은 경험 등이 포함되었다.

4) 모유수유 실천의도

모유수유 실천의도는 5점 척도의 Likert-type scale에 의해 조사하였다. '모유수유 할 것 같지 않다'에 -2점에서 '모유수유 할 것 같다' 2점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5)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과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로 조사하였다. 신념 문항은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을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모유수유 결과 아기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신념이 얼마나 확고한지를 묻는 것이다.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은 15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모유수유에 대해 가장 긍정적 신념을 보인 답에 2점에서 가장 부정적 신념에 -2점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Chronbach's Alpha는 0.73으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평가 문항은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아기에 알레르기가 일어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는 15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모유수유로 인해 생기는 결과에 가장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 경우에 2점에서 가장 부정적 평가에 -2점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Chronbach's Alpha는 0.74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6) 모유수유에 대한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과 순응동기로 조사하였다. 규범적 신념은 준거집단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격려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남편은 모유수유를 얼마나 격려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다. 규범적 신념은 7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 '적극 격려할 것이다'에 2점에서 '전혀 격려하지 않을 것이다'에 -2점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Chronbach's Alpha는 0.71로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순응동기는 자신이 준거집단의 권유를 얼마나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예를 들면, '남편이 모유수유를 권유한다면 얼마나 그 의견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순응동기는 7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서 '적극적으로 따를 것이다'에 4점에서 '전혀 따르지 않을 것이다'에 0점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Chronbach's Alpha는 0.91로 본 문항의 신뢰도는 매우 높았다.

7) 인지된 행동 통제력

인지된 행동 통제력은 통제신념으로 측정하였다. 통제신념은 모유수유를 수행하는데 느끼는 쉽거나 어려운 정도를 묻는 문항이다. 통제신념은 7문항으로 5점 척도의 Likert-type scale로 측정하였다. 각 문항에서 '모유를 먹일 수 있을 것이다'에 2점에서 '모유를 먹일 수 없을 것이다'에 -2점까지 단계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였다. Chronbach's Alpha는 0.78로 본 문항의 신뢰도는 만족할만한 수준이었다.

3. 자료분석 및 통계처리

설문지 자료는 SPSSWI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등)를 이용하였다.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통제신념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무엇인가를 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조사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만 27세였다. 분포는 만 19세에서 만 37세까지였으며 71%가 20대 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은 44%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Variables	Characteristics	N(%)	Total N(%)
Age(year)	< 19	1(0.8)	131(100)
	20 - 24	20(15.3)	
	25 - 29	93(71.0)	
	30 ≤	17(12.9)	
Education	High school graduate	73(55.7)	129(100)
	College ≤	56(44.3)	
Residence	Large city	74(56.9)	130(100)
	Middle · Small city	53(40.8)	
	Rural	3(2.3)	
Income/month (10,000won)	< 100	19(14.8)	128(100)
	100 - 199	99(77.4)	
	200 - 299	10(7.8)	
Experience of nutrition education	Yes	36(27.7)	130(100)
	No	94(72.3)	

Table 2. Distribution of breastfeeding intention

Breastfeeding intention	Score	N(%)
1(Unlikely)	-2	0(0.0)
2	-1	3(2.3)
3	0	4(3.1)
4	1	13(10.0)
5(Likely)	2	110(84.6)
Total		130(100.0)

였다. 수입은 77%가 100~199만원 사이였다.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72%가 '없다'라고 응답했다. 조사대상자의 대부분의 나이는 30세 미만, 학력은 고졸 이상, 도시 거주자, 월 소득 100~199만원 사이로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동질적인 집단이었다.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전체 중 28% 정도로 모유수유에 대한 영양교육이 많이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한 영양교육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모유수유 실천의도

모유수유 실천의도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실천의도의 평균 점수는 1.8 ± 0.6 (범위 -2.0~2.0)으로 응답자의 모유수유 실천의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조사대상자의 85%가 '모유수유 할 것 같다'의 높은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나타냈다. 이는 박순정(1996)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42%, 오현이 등(1994)의 연구결과의 75%보다는 높은 비율이었고, 전희순·홍성야(1996)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자의 93%가 출산 전 수유방법 계획에서 모유수유를 선택했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면 본 연구에서의 모유수유 실천의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본 연구와 함께 오현이 등(1994), 전희순·홍성야(1996)의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들은 대부분 높은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우리 나라의 모유수유를

Table 3. Beliefs of behavioral outcomes and Pearson's correlation with behavioral intention

Items	Behavioral intention	
	Mean ± SD	R
Breastfeeding		
prevents the risk of allergies	1.08 ± 0.92	0.334**
protects the infant from diseases	1.38 ± 0.85	0.301**
contributes to intellectual development	1.32 ± 0.92	0.293**
promotes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mother and infant	1.78 ± 0.69	0.263**
is more convenient than formula feeding	0.88 ± 1.14	0.233**
costs less than formula feeding	1.23 ± 0.94	0.223*
reduces the risk of breast cancer	1.27 ± 0.95	0.222*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weight for the mother	0.66 ± 1.17	0.201*
provides best nutrition for the infant	1.31 ± 0.99	0.102
makes the mother physically tired	0.27 ± 1.22	0.004
makes the mother take sole feeding responsibility	1.15 ± 1.06	-0.007
restricts social activities	0.87 ± 1.10	-0.023
interferes with having sex	-0.30 ± 1.29	-0.048
stimulates contraction of the uterus	-0.15 ± 1.20	-0.048
ruins appearance of breasts	-0.22 ± 1.31	-0.060
Total	12.74 ± 7.17 (-30.00~30.00)	0.214*

* : $p < 0.05$, ** : $p < 0.01$

은 1990년대의 경우에 20~34%로 상당히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모유수유 실천의도가 실제 모유수유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실천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여겨지며, 그 연구를 바탕으로 영양교육을 실시하여야만 실제 모유수유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3.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1)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 문항들의 평균 점수 및 신념의 각 문항과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를 Table 3에 제시하였다. Table 3에 나타났듯이 신념 총점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평균 점수는 12.7 ± 7.2 (범위 -30.0~30.0)로 모유수유 결과에 대해 긍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는 신념 문항 중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아기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것이다'와 '아기의 지능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가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러나 '부부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자궁 수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몸매가 망가질 것이다'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모유수유가 임산부의 자

공수축에 도움이 되는 만큼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가슴에 잘 맞는 브래지어 착용과 양쪽 유방으로의 균형 있는 수유는 유방 모양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또한 모유를 먹이면 임신 중 축적된 지방을 소모하여 체중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졌다. 그러므로 영양교육을 통해 이런 부정적인 신념을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 총점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유의적인($p < 0.05$) 상관관계가 있었다. 신념 문항 중 실천 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문항은 '아기에게 알레르기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p < 0.01$), '아기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p < 0.01$), '아기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p < 0.01$),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 ($p < 0.01$), '우유 먹일 때 보다 편리할 것이다' ($p < 0.01$),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p < 0.05$),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p < 0.05$),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 ($p < 0.05$) 이었다. 이들 중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항목은 아기의 건강과 지능 발달에 관련된 문항이었다. 모유수유의 편리함과 경제성, 모체건강에 관련된 문항은 비교적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런 결과로 보면 본 조사대상자들은 모유수유가 아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때 모유를 먹일 의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영양교육을 실시할 때 모유가 아기에게 주는 이득을 강조한다면 모유수유율의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 문항들의 평균 점수와 평가의 각 문항과 모유수유 실천의도와와의 상관관계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본 조사대상자들은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다'에 가장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그리고 신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기의 건강과 두뇌발달의 측면에 대해서도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와 모유수유 실천의도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3)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의 각 문항의 점수와 그 문항에 해당하는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의 점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이다. 행동에 대한 태도 값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Attitude = \sum_{i=1}^{15} B_i \times E_j$$

(B_i = Belief of breastfeeding outcomes, E_j = Evaluation of breastfeeding outcomes)

Table 4. Evaluation of breastfeeding outcome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breastfeeding intention

Evaluation of breastfeeding outcomes Items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 \pm SD	r
It is good that breastfeeding _____		
contributes to intellectual development	1.71 \pm 0.58	0.135
interferes with having sex	1.02 \pm 1.00	0.097
protects the infant from diseases	1.70 \pm 0.52	0.072
ruins the appearance of breasts	0.44 \pm 0.99	0.031
is more convenient than formula feeding	1.24 \pm 0.95	0.028
prevents the risk of allergies	1.73 \pm 0.59	-0.002
promotes psychological closeness between mother and infant	1.60 \pm 0.70	-0.002
costs less than formula feeding	1.56 \pm 0.95	-0.003
restricts social activities	1.32 \pm 0.86	-0.007
makes the mother take sole feeding responsibility	0.27 \pm 1.03	-0.023
stimulates contraction of the uterus	0.44 \pm 1.09	-0.042
contributes to the reduction of weight for the mother	1.61 \pm 0.65	-0.055
reduces the risk of breast cancer	1.85 \pm 0.52	-0.063
provides the best nutrition for the infant	4.58E-02 \pm 1.01	-0.069
makes the mother physically tired	2.29E-02 \pm 0.97	-0.094
Total	16.67 \pm 5.86 (-30.00~30.00)	-0.010

전체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의 평균 점수는 23.0 \pm 13.3(범위 -60.0~60.0)으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변수자 등(1994)의 연구에서 0.0~60.0점까지의 점수 범위 중 조사대상자들의 태도 점수는 평균 49.9이었고, 조사대상자의 65%가 50.0~60.0점의 비교적 높은 태도점수를 나타낸 연구 결과와 유사했다. 모유수유에 대한 임신부의 태도나 신념은 모유수유 실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정혜경 1993)하고 있다. 따라서 모유수유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도록 출산 전에 영양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모유수유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4. 주관적 규범

1) 규범적 신념

Table 5에서 볼 수 있듯이 규범적 신념의 평균 점수는 9.9 \pm 3.4(범위 -14.0~14.0)로 조사대상자들은 그들의 준거인이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격려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규범적 신념에서 시어머니의 권유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p < 0.01$). 그 다음으로 모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p < 0.01$), 친정어머니($p < 0.01$), 모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친구($p < 0.05$), 남

Table 5. Normative belief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breastfeeding intention

Normative beliefs Items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 ± SD	r
If I breastfeed my infant, _____ will encourage me.		
my mother-in-law	1.85 ± 0.43	0.307**
sibling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1.40 ± 0.90	0.297**
my mother	1.76 ± 0.58	0.256**
friend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1.30 ± 0.87	0.207*
my husband	1.87 ± 0.40	0.190*
sibling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0.96 ± 1.05	0.122
friend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0.62 ± 1.18	-0.019
Total	9.87 ± 3.43 (-14.00~14.00)	0.186*

* : p < 0.05, ** : p < 0.01

편(p < 0.05)의 순서로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친정 어머니의 권유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는 다른 연구와 같은 결과였다(권숙희 등 1993 ; 김혜숙 1994 ; Aberman & Kirchoff 1985 ; Ekwo 등 1983 ; Matich & Sims 1992 ; Yeung 등 1981). 본 연구에서도 여러 연구(Ekwo 등 1983 ; Grossman 등 1990 ; Jones & Belsey 1977)에서와 같이 모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준거인은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남편의 격려는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남편이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고한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김혜숙 1994 ; Beske & Garvis 1982 ; Ekwo 등 1983 ; Freed 등 1993 ; Littman & Medendorp 1984 ; Matich & Sims 1992 ; Yeung 등 1981). 모유수유 경험이 없는 준거인은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가 없었다.

2) 순응동기

순응동기 각 문항의 평균점수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순응동기의 평균 점수는 24.6 ± 4.6(범위 0.0~28.0)으로 조사대상자들은 준거인의 모유수유 권유에 적극적으로 따를 의사를 갖고 있었다. 순응동기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를 보인 것은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p < 0.01)와 친구(p < 0.01), 친정어머니(p < 0.01), 모유수유 경험이 없는 형제자매(p < 0.05)였다. 그러나 규범적 신념에서와는 달리 시어머니에 대한 순응동기는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모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와 친구의 권유는 친정어

Table 6. Motivation to comply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breastfeeding intention

Motivation to comply Items	Correlation coefficients	
	Mean ± SD	r
If _____ suggest I breastfeed my infant, I will comply.		
sibling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3.59 ± 0.71	0.292**
friends with breastfeeding experience	3.60 ± 0.71	0.275**
my mother	3.70 ± 0.60	0.249**
sibling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3.15 ± 1.10	0.182*
friends without breastfeeding experience	3.17 ± 1.05	0.170
my husband	3.73 ± 0.52	0.166
my mother-in-law	3.66 ± 0.70	0.136
Total	24.59 ± 4.56 (0.00~28.00)	0.253**

* : p < 0.05, ** : p < 0.01

머니, 모유를 먹인 경험이 없는 형제자매, 친구, 남편의 권유보다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더 유의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Jones & Belsey(1977)와 Bloom 등(1982)의 연구에서 수유방법 결정에 친구가 영향력이 있다고 보고한 것과 일치한다. Jones & Belsey(1977년)는 모유수유를 성공적으로 했던 친구가 있는 여성은 모유수유를 선택하기 쉽고, 모유수유에 문제가 있었던 친구가 있는 여성은 인공유를 선택하기 쉽다고 보고했다. 특히 초산부의 경우 친구의 경험이 수유방법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다. 남편의 권유는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Anderson & Shepherd(1989)의 연구에서 남편의 경우 모유수유 행동과 순응동기 사이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3) 주관적 규범

주관적 규범은 규범적 신념 각 문항의 점수와 그 문항에 해당하는 순응동기 각 문항의 점수를 곱하여 합산한 점수이다. 주관적 규범의 값을 산출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Subjective norm} = \sum_{i=1}^7 N_i \times M_j$$

(Ni = Normative belief, Mj = Motivation to comply)

전체 대상자의 주관적 규범의 평균 점수는 17.5 ± 8.2(범위 -56.0~56.0)이었다.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조사대상자들은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대해 준거인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와 친구, 친정어머니, 남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모유수유에 대한 영양교

육을 실시할 때 긍정적인 모유수유 경험이 있는 사람을 강사로 초빙하여 모유수유에 대한 경험과 모유수유의 장점 등을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교육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임신부 이외에 준거인에 대한 영양교육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중요한 준거인인 형제자매, 친구,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등을 영양교육에 임신부와 함께 참여하도록 하는데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들 준거인에게 모유수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공익광고, 모유수유에 관한 TV 기획 프로그램 등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5. 인지된 행동 통제력

통제신념 각 문항의 평균 점수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와의 상관관계를 Table 7에 제시하였다. 전체 대상자의 통제신념 평균 점수는 3.3 ± 0.8(범위 - 14.0~14.0)이었다. 통제신념과 모유수유 실천의도 사이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는데 아기가 젖꼭지를 깨물 경우를 제외한 모든 통제신념이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문항에 비해 '젖몸살을 앓을 경우',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야 할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경우'가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응답자들은 '아기가 젖꼭지를 깨물 경우'에서는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를 보

이지 않았다. 그러나 Spake & Harris(1987)의 모유수유 중지의 가장 흔한 이유는 인지된 모유 부족, 젖꼭지의 아픔, 그리고 아기의 깨물기로 나타나고 있었다.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이는 경우'는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상관관계를 보였다. 최상순 등(1996년)의 연구에서도 유방의 노출은 모유수유의 저해 요인 중 하나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유는 수유부 자신이 공공장소에서의 유방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있겠지만, 그 보다는 주위 사람들의 공공장소에서의 수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나 시선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수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일반인을 교육하거나, 공공장소에서 수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6. 모유수유 실천의도 예측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가장 영향을 주는 변수는 통제신념이고 그 다음으로 모유수유 실천에 대한 태도이었다.

통제신념이 유의한 변수로 나타난 것은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이용하여 모유수유 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연구한 남은숙(1993)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통제신념의 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하였을 때 통제신념이 모유수유 의지에 대한 유의한 예측요인으로 나온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여러 연구결과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모유수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나타났다(정혜경 1993; Black 등 1990; Dix 1991; Dusdieker 등 1985). 또한 본 연구 결과는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이용한 Matheny 등(1987)의 연구에서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모유수유 의도에 유의적인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내용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통제신념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는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15%만을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tich & Sims (1992)의 연구에서 산모의 나이, 자녀의 수, 교육수준 등 인구통계학적 특징이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70%의 설명력이 있었다고 보고한 결과와 비교하여 보면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들은 비교적 인구통계학적으로 동질적 집단이었기 때문에 인구통계학적 변인에 의한 설명력이 제거

Table 7. Control beliefs and correlation coefficients with breastfeeding intention

Control beliefs	Correlation coefficients	
Items	Mean ± SD	r
I can breastfeed my infant, _____		
when I suffer from mastitis	0.25 ± 1.34	0.378**
when I have to cut down on coffee, alcohol, and smoking	1.33 ± 1.21	0.350**
when I have Caesarean section	0.69 ± 1.29	0.315**
when I need to maintain breast condition	0.92 ± 1.13	0.250**
when I have to breastfeed in public	-0.53 ± 1.34	0.216*
when the infant hates to suck my nipple	0.11 ± 1.22	0.173*
when the infant bites my nipple	0.51 ± 1.10	0.080
Total	3.26 ± 0.83 (- 14.00~14.00)	0.389**

* : p < 0.05, ** : p < 0.01

Table 8. Multiple regression on predicting breastfeeding intention

	Variables	BETA	T	p-value	R ²
In equation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0.250	2.343	0.021	0.154
	Attitude toward behavior	0.229	2.111	0.037	
Not in equation	Subjective norm	-0.028	-0.252	0.801	

되어 낮은 설명력을 나타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본 조사 대상자들의 85%가 모유수유를 할 것이라고 높은 의도를 보였기 때문에 통제신념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로 실천의도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요약 및 결론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기 위해서 계획적 행동이론을 기반으로 모유수유 실천의도,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통제신념과 인구통계학적 요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초임이며 임신후반기(7~9개월)인 여성 131명이었으며, 조사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1999년 6월에 실시하였다.

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나이는 만 27세였으며 71%가 25~29세에 속했다.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이 56%, 전문대학교 졸업 이상은 43%이었다. 수입은 100~199만원 사이가 77% 이었다. 응답자 중 영양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28%이었다.

2) 전체 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실천의도의 평균 점수는 1.8 ± 0.6 (범위 -2.0~2.0)으로 높은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3) 조사대상자의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신념과 평가는 모두 긍정적이었다.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보인 신념은 '아기에게 알레르기가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아기가 질병에 잘 걸리지 않을 것이다', '아기의 지능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엄마와 아기가 더 친밀해질 것이다', '우유 먹일 때 보다 편리 할 것이다', '경제적으로 이득이 될 것이다',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체중 감소에 도움이 될 것이다'의 문항이었다. 모유수유 실천의도와 모유수유 결과에 대한 평가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4) 주관적 규범의 평균 점수는 17.5 ± 8.2 (범위 -28.0~28.0)로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유의적 영향을 미친 주위사람은 모유를 먹인 경험이 있는 형제자매와 친구, 친정 어머니 이었다.

5) 통제신념의 평균 점수는 3.3 ± 5.8 (범위 -14.0~14.0)로 중간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실천의도와 유의적 상관관계를 보인 통제신념은 '젓몸살을 앓을 경우', '커피, 술, 담배 등 아기에게 해로운 기호품을 삼가야 할 경우', '제왕절개 수술을 할 경우', '유방마사지, 남은 젓 짜내기 등 유방관리를 해야 할 경우', '기차, 버스, 식당 등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여야 할 경우', '아기가 엄마 젓꼭지 빠는 것을 싫어할 경우' 이었다.

6) 행동 결과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통제신념이 모유수유 실천의도에 미치는 정도를 다중회귀분석에 의해 분석한 결과, 통제신념이 실천의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그 다음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수유 실천의도를 예측하는데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통제신념과 모유수유에 대한 태도가 있었다. 그러므로 모유수유 실천의도가 높다 하더라도 실제 상황에서 어려움에 부딪치면 행동으로 연결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통제신념 문항 중에서도 특히 공공장소에서 모유를 먹여야 하는 경우와 아기가 젓 빠는 것을 싫어하는 경우가 가장 모유수유가 어렵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모유수유 영양교육을 실시 할 때는 공공장소에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먹일 수 있는 방법, 아기가 젓 빠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대처하는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권숙희 · 김영자 · 김영혜 · 김인순 · 문길남 · 박금자 · 박봉주 · 박순옥 · 박춘화 · 배영순 · 배정미 · 백경선 · 송애리 · 이영은 · 이은주 · 이지원 · 이화자 · 정경애 · 정은순 · 최혜숙(1993) : 모유수유 실천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3(2) : 172-186
 김화숙(1991) : 모유수유를 시도했던 초산부의 모유수유 지속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간호학과 석사논문
 김혜숙(1993) : 모유의 신비. 에드백
 남은숙(1994) : Theory of planned behavior를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이 모유수유행동에 미치는 효과. 연세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박사논문
 박순정(1996) : 출산전 모유수유 계획유무에 따른 출산후 모유수유 실천율. 경북대학교 보건대학교 석사논문
 변수자 · 한경자 · 이자형(1994) : 수유형태와 모유수유에 대한 어머니들의 태도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 52-67
 오현이 · 박난준 · 임은숙(1994) : 성공적인 모유수유를 저해하는 요인에 관한 분석적 연구. *모자간호학회지* 4(1) : 68-79
 이미자(1995) : 모유수유 저해요인에 대한 산모와 신생아실 간호사간의 인식정도 비교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1(1) : 108-119
 전희순 · 홍성야(1996) : 인천지역 수유부의 수유실태와 수유방법에 영향을 주는 요인. *지역사회영양학회지* 1(3) : 433-440
 정귀영 · 이 근(1983) : 모유 실패의 원인. *소아과학회지* 26(6) : 1-7
 정혜경(1993) : 임부의 모유 수유에 대한 태도 유형 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석사논문
 최상순 · 이은희 · 윤경희 · 심복경 · 최남희(1996) : 모유수유 실태와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2) : 222-234
 Aberman S, Kirchoff KT(1985) : Infant-feeding practices ; Mothers' decision making. *J Obstet Gynecol Neonatal Nurs* 14(5) : 394-398
 Anderson AS, Shepherd R(1989) : Beliefs and attitudes toward "he-

- althier eating" among women attending maternity hospital. *JNE* 21(5) : 208-213
- Balcazar H, Trier CM, Cobas JA(1995) : What predicts breastfeeding intention in Mexican-American and non-Hispanic white women? Evidence from a national survey. *Birth* 22(2) : 74-80
- Barron SP, Lane HW, Hannan TE, Struempfer B, Williams JC(1988) : Factors influencing duration of breast feeding among low-income women. *JADA* 88(12) : 1557-1561
- Bar-Yam NB, Darby L(1997) : Fathers and breastfeeding : A review of the literature. *J Hum Lact* 13(1) : 45-50
- Beske EJ, Garvis MS(1982) : Important factors in breast feeding success. *Child Nurs J* 7(3) : 174-179
- Black RF, Blair JP, Jones VN, Durant RH(1990) : Infant feeding decisions among pregnant women from a WIC population in Georgia. *JADA* 90(2) : 394-398
- Bloom K, Goldbloom KB, Stevens FE(1982) : Breast versus formula feeding : I. Factors affecting the mother's choice of infant feeding method. *Acta Paediatrica Scandinavica* 300(Supp.) : 3-8
- Buxton KE, Gielen AC, Faden RR, Brown H, Paige DM, Chwalow J (1991) : Women intending to breastfeed : Predictors of early infant feeding experiences. *Am J Prev Med* 7(2) : 101-106
- Cusson RM(1985) : Attitude toward breastfeeding among female high-school student. *Pediatr Nurs* 11(3) : 189-191
- Dix DN(1991) : Why women decide not to breastfeed. *Birth* 18(4) : 222-225
- Dusdieker LB, Booth BM, Seals BF, Ekwo EE(1985) : Investigation of a model for the initi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gravida women. *Soc Sci Med* 20(7) : 695-703
- Ekwo EE, Dusdieker LB, Booth B(1983) : Factors influencing initiation of breastfeeding. *Am J Dis Child* 137(4) : 375-377
- Feinstein JM, Berkelhamer JE, Gruszka ME, Wong AE(1986) : Factors related to early termination of breastfeeding in an urban population. *Pediatrics* 78(2) : 210-215
- Freed GL, Fraley JK, Scharler RJ(1993) : Accuracy of expectant mothers' prediction of fathers' attitude regarding breastfeeding. *J Fam Pract* 37(2) : 148-152
- Grossman LK, Fitzsimmons SM, Larsen-Alexander JB, Sach L, Harter C(1990) : The infant feeding decision in low and upper income women. *Clinical Pediatrics* 29(1) : 30-37
- Humphreys AS, Thompsoy NJ, Miner KR(1998) : Intention to breastfeed in low-income pregnant women :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previous experience. *Birth* 25(3) : 169-174
- Jones DA(1986) : Attitudes of breastfeeding mothers : A survey of 649 mothers. *Soc Sci Med* 23(11) : 1151-1156
- Jones RAK, Belsey EM(1977) : Breastfeeding in an inner London Borough : A study of cultural factors. *Soc Sci Med* 11(3) : 175-179
- Jordan PL(1986) : Breastfeeding as a risk factors for fathers. *JOGNN* 15(2) : 94-97
- Jordan PL, Wall VR(1990) : Breastfeeding and fathers : Illuminating the darker side. *Birth* 17(4) : 210-213
- Libbus K, Bush TA, Hockman M(1997) : Breastfeeding beliefs of low-income primigravidae. *Int J Nurs Stud* 34(2) : 144-150
- Littman H, Medendorp SV(1994) : The decision to breastfeed : The importance of father's approval. *Clin Pediatr* 33(4) : 214-219
- Manstead AS, Proffitt C, Smart JL(1983) :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 Test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Social Psychology* 44(4) : 657-671
- Matheny RJ, Picciano MF, Birch L(1987) : Attitudinal and social influences on infant-feeding preference. *JNE* 19(1) : 21-31
- Matich JR, Sims LS(1992) : A comparison of social support variables between women who intend to breast or bottle feed. *Soc Sci Med* 34(8) : 919-927
- Melville B, Lawence O, Williams M, Archer E, Francis V, Lee C(1987) : Feeding practices of infants and beliefs of mothers in western Jamaica. *JNE* 19(20) : 70-72
- Scott JA, Binns CW, Arnold RV(1997) : Attitudes toward breastfeeding in Perth, Australia : Qualitative analysis. *JNE* 29(5) : 244-249
- Spake J, Harris MB(1993) : Reasons for continuing and ceasing breastfeeding in low income Hispanics and White. *JNE* 25(1) : 37-40
- Timbo B, Altekruise S, Headrick M, Klontz K(1996) : Breastfeeding among black mothers : Evidence supporting the need for prenatal intervention. *J Soc Pediatr Nurs* 1(6) : 35-40
- Wright HJ, Walker PC(1983) : Prediction of duration of breastfeeding in primiparae. *J Epidemiol Community Health* 37(2) : 89-94
- Yeung DL, Pennell MD, Leung M, Hall J(1981) : Breastfeeding : Prevalence and influencing factors. *Can J Public Health* 72(5) : 323-330